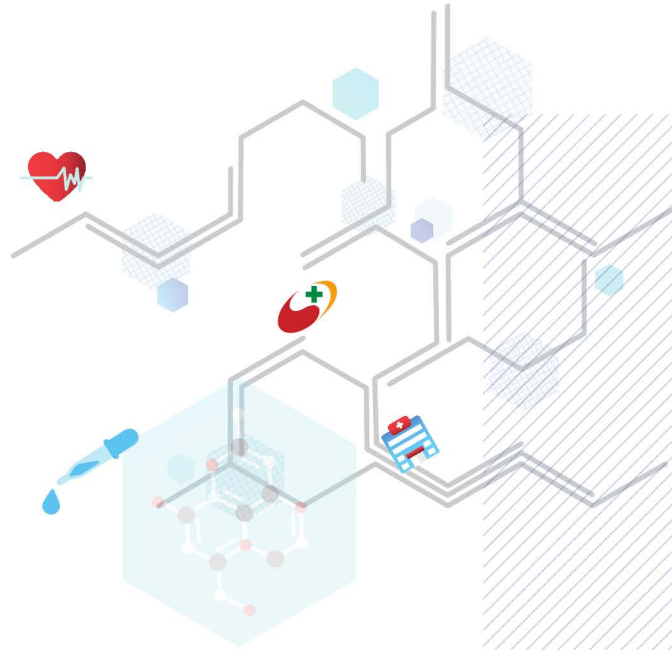


산업보건 주요뉴스



고용노동부,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기관 추가 공모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고급 훈련을 통해 문제해결형 창의·융합 인력 양성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할 민간 선도훈련 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월부터 서울대, 멀티캠퍼스, 비트컴퓨터 등 11개 기관에서 24개 과정을 통해 626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번 추가공모는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에 의한 것으로 대학, 연구소, 훈련기관 등 역량 있는 민간기관을 4차 산업혁명 선도 훈련기관으로 선정하여 고품질 훈련으로 이끌 계획이다.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비는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 스마트제조 등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는 기술 분야에서 고급 훈련과정을 제시하면 일반 훈련비 단가의 400% 내에서 지원되며 신산업분야 훈련에서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신규장비의 경우 훈련비 단가 400% 초과 시에도 지원된다.

훈련 분야는 ① 스마트제조(스마트 팩토리, 로봇 등 포함), ②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③ 빅데이터(Intelligence network with Big data, 인공지능 등 포함), ④ 정보보안, ⑤ 바이오(Bio-Chemical Innovations) ⑥ 핀테크(Finance & Technology), ⑦ 무인이동체(Unmanned aerial Vehicle, 드론), ⑧ 실감형 콘텐츠(AR·VR) 등 총 8개 분야로 로봇이나 인공지능(AI) 등 최근 급부상하는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훈련수준은 NCS 5레벨 이상의 고급훈련을 원칙으로 하되, 신산업 분야로 NCS 미개발 분야의 경우 훈련 수준이 높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허용할 계획이다.

그밖에 총 훈련시간의 25% 이상을 프로젝트 실습에 편성하도록 의무화하여 훈련생이 ▲ 복합문제 해결역량(complex problem solving skills)을 갖추 수 있게 하고 ▲ 훈련생 요구 및 수준별 지원 등을 통한 철저한 훈련품질 관리 ▲ 신산업 분야 기업과의 채용지원 협약(MOU) 체결 등 필요 요건을 갖춰야 한다.

훈련기관·과정은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선정되고, 훈련생은 각 훈련 기관의 과정 특성에 맞춰 선발되며 훈련생 모집은 빠르면 9월 중순부터 진행된다.

약 15개 훈련과정 개설을 통해 400명 정도의 정예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훈련수료자가 협약기업 등 신산업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창의·융합형 인력양성이 중요하다”며 “미래 유망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함께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사업 계획서 접수를 마치고, 9월초 훈련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정공고문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 주세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8월 한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보험범죄의 특성상 범죄의식이 낮고 특히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치밀하게 조작하는 경우 적발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에 있어 공단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2010. 4. 28 보험조사 전문조직을 신설하여 부정수급 조사의 전문성을 높였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2015. 2. 27 「서울보험조사팀」, 2017. 1. 23 「익산보험조사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운영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고위험군을 추출하여 기획조

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6월말까지 2,150건을 적발하여 901억 원이 환수조치 되었고, 1,664억 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보험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하며 "그러나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불법 브로커 개입 등 지능화되고 조직화됨에 따라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산재보험 재정의 건정성과 선량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2017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전망” 발표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계, 전자, 조선, 자동차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업종과 건설 및 금융보험업에 대한 '17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고용보험 피보험자, 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을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기계·반도체·건설 업종은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전자·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 업종은 지난해 하반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금융보험 업종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조선 업종은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이다.

1. 기계 : 증가

하반기 보호무역주의 강화, 건설 기계 분야의 신규 수주 규모 감소, 기계 시장의 경쟁심화 등 기계 업종 고용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하나, 미국,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한 대외 설비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용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8%(13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조선 : 크게 감소

세계경기둔화, 선박공급과잉, 유가약세 등으로 인한 조선 업종의 침체가 2017년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016년 수주 급감에 따른 일감 절벽과 구조조정이 내년까지 지속됨에 따라 2017년 하반기에도 고용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20.2%(33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전자 : 유지

기업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으며, 자국 보호주의 무역정책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반도체·패널·SSD 등 기술경쟁력 우위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0.9%(6천 명) 증가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섬유 : 감소

동남아 지역의 섬유소재 수요 증가와 EU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오더 증가,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정부 및 민간 주도의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 등으로 섬유수요 및 내수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원자재 가격 하락, 온라인 등 저가시장 확대로 단가는 크게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자동화 설비 증가 및 해외 생산 확대의 영향으로 고용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1.7%(3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철강 : 유지

조선, 자동차 등 수요산업의 성장 부진과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규제 심화 등으로 하반기에는 내수 감소세 전환 및 수출 둔화가 예측되며, 철강시황 부진의 여파로 기존 인원의 총원에 대한 니즈와 신규 채용이 감소함에 따라 고용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4%(2천 명) 감소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6. 반도체 : 증가

글로벌 경기 회복과 더불어 PC 고사양화, 스마트폰 탑재 메모리 고용량화 및 고성능·고용량 서버와 스토리지 증대 등에 따른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반도체 업종의 호황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제조공장인 삼성전자의 평택공장 가동에 따라 반도체 장비·재료 산업도 함께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도체 업종의 고용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2.5%(3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7. 자동차 : 유지

2017년 하반기에는 생산을 견인해오던 내수는 다소 증가하지만, 수출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산이 상반기에 비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소폭 증가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0.6%(2천 명) 증가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8. 디스플레이 : 유지

스마트폰, TV의 OLED 채용 증가에 따른 시장의 꾸준한 성장 속에서 LCD 가격 상승 및 대형사이즈 LCD TV 수요 증가로 패널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의 LCD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OLED 투자 확대도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 역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LCD 시장의 축소에 따른 글로벌 부품소재 시장의 위축 등의 요인으로 고용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하반기 고용은 전년동기 대비 0.9%(1천 명) 감소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9. 건설 : 증가

2017년 하반기 건설 업종은 SOC 예산 감소와 주거용 건축물의 과잉공급 해소 지연 등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수주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지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고용 수준은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하반기 고용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2.9%(55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0. 금융보험 : 감소

2017년 하반기 금융 업종은 경기 회복 부진과 신용리스크 증가, 가계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대출 증가율 둔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보험 업종과 카드 업종 역시 저축성 보험 판매 감소와 카드 수수료율 인하 대상 확대 등으로 인한 성장세 둔화가 예측됨에 따라 고용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하반기 고용은 전년동기 대비 3.6%(29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3년 7월 7개 제조 업종을 시작으로 '14년 1월에는 조선 업종, '15년 7월부터 건설 업종, 금융·보험 업종을 추가한 총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반기별 일자리 전망을 공동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고용보험 DB,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활용해 수요 측면의 일자리를 전망한 것으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업종별 고용상황을 예측하고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회(Sector Council)를 통한 경기전망과 더불어 직종, 지역별로 세분화한 취업 유망분야를 제시함으로써 기업과 구직자들 간의 구인·구직활동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고 미래의 고용 트렌드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